

호랑이 투·타 균형 잡는다



마츠바라 타격 코치·새 용병 라이트 합류

두산·LG 상대 안방 6연전... 승수쌓기 나서

부상이라는 뜻밖의 암초에 휘청였던 KIA 타이거즈가 이번주 본격적인 리빌딩 작업에 들어간다.

KIA는 지난주 SK·삼성 두 강팀과의 힘겨운 원정 6연전을 치렀다. 5할 승률을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투·타의 불균형 속에 필요 이상으로 전력 소모가 많았던 한 주였다. 연장 12회 끝내기 실책으로 막을 내렸던 9일 삼성과의 경기는 KIA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준 경기였다.

윤석민을 마운드에 올린 이날 KIA는 5-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5-6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결정력 부족의 타선은 12회초 무사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등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잘 던지던 윤석민은 5회말 순식간에 4실점했다.

로드리게스와 이대진의 이탈로 계획했던

6선발 체제가 삐걱거리면서 선발진의 부담이 가중됐다. 위태로운 선발진의 움직임에 덩달아 불펜진에도 과부하가 걸렸다.

시범경기에서 패조의 컨디션을 보였던 방망이도 동반 부진에 빠지며 매경기 총력전이 벌어졌다. 개막 후 거둔 6승이 모두 2점차 내에서 승부가 난 피말리는 접전이었다.

원정 혈투를 벌이고 돌아온 KIA는 이번주 홈에서 두산과 LG를 맞는다. 높은 마운드의 두산, 화려한 타선을 자랑하는 LG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KIA에 구원군이 등장했다.

지난해 타격 인스트럭터로 V10에 합류했던 마츠바라 코치가 예정보다 일찍 팀에 합류해 방망이 다듬기에 나섰다. 5월 합류를 계획했던 마츠바라는 조범현 감독의 SOS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입국해 선수단과 동행하고 있다.

타선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조범현 감독은 12일 체중범을 2군으로 내리고 홍세완과

프로야구 중간순위 (12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두산	9	2	1	0.750	1패
2	삼성	9	4	0	0.692	1패
3	SK	8	4	0	0.667	4승
4	KIA	6	7	0	0.462	1승
5	LG	4	7	1	0.333	1승
5	롯데	4	8	0	0.333	1승
5	넥센	4	8	0	0.333	6패
5	한화	4	8	0	0.333	1패

차일목을 불러 컨디션을 점검했다.

마운드에 승용을 띄워줄 새 용병 맷 라이트도 천군만마다. 라이트의 가세로 선발 로테이션이 최종 확정되면 오버 페이스를 했던 불펜진도 정상 모드로 돌아갈 전망이다.

변수는 로페즈다. 로페즈는 지난주 어깨 근육이 뭉치면서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걸렸다. 로페즈는 15일쯤 점검을 받은 뒤 투입여부가 결정된다.

조범현 감독은 다음주를 순위싸움을 위한 전투체제가 완성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두산과 LG와의 대결이 벌어지는 이번주 KIA가 필사적으로 지켜야하는 방어선이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새 용병 라이트 'KIA의 빛' 될까

140km 후반대 직구, 볼 끝 위력 좋아 선발 합격점

새 용병 맷 라이트 KIA의 '빛'이 될까? KIA 타이거즈의 우완 정통파 맷 라이트가 LG 트윈스와 3연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KIA는 1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특별훈련을 진행했다. 휴일을 반납한 야수진과 선발진들의 훈련이 진행된 이날 불펜에 KIA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새 용병 라이트의 피칭이 진행될 것이다.

10일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입국한 라이트는 11일 무등경기장에서 60개의 공을 던지며 몸을 풀었다. 12일에는 원정경기를 다녀온 조범현 감독과 스키모토 투수 코치, 스카우트 등 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펜 피칭을 했다.

이날 35개의 공을 던진 라이트는 곧바로 선발 합류 통보를 받았다.

시즌 중 용병이 합류하면 중간에서 몸을 뽀뽀한 선발에 합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조범현 감독은 "중간에서 점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곧바로 선발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등판 시점은 LG와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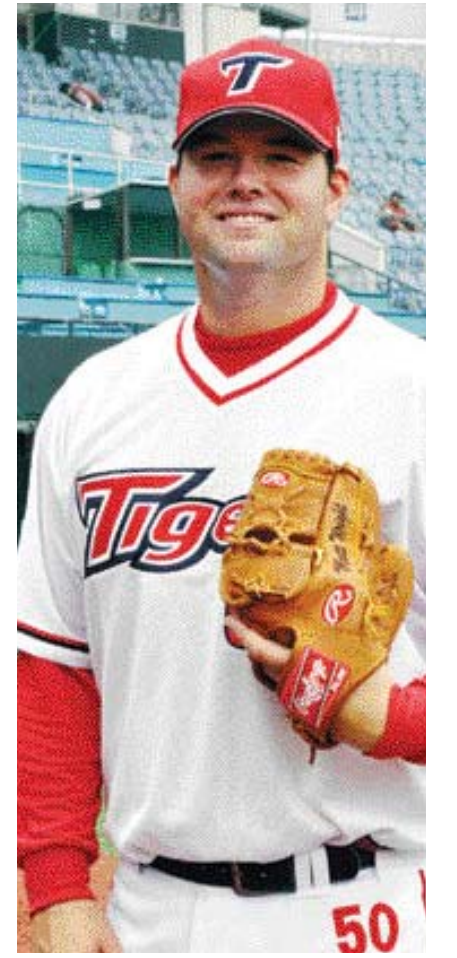
기가 열리는 주말이 될 전망이다.

라이트의 피칭이 끝난 후 긴장감이 돌던 불펜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수준급 구위와 활발한 성격이 팀 관계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이다.

불펜에서 라이트와 호흡을 맞췄던 포수 이상우는 "100% 전력 피칭이 아니었지만 체구가 좋은 선수답게 공이 상당히 묵직해서 타자들이 고생 좀 할 것 같다"며 "로드리게스가 공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하면 라이트는 볼 끝 위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140km 후반대의 묵직한 직구와 192cm, 122kg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한 라이트는 활발한 성격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피칭을 지켜본 이들에게 일일이 '감사하다'고 인사한 라이트는 12초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관없다. 빠른 피칭을 좋아한다. 빠른 승부로 타자들을 상대하겠다"고 호쾌한 웃음을 선보이기도 했다.

KIA 마운드의 새 희망 라이트의 한국 무대 도전을 주말 무등벌에서 막이 오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 파워' 마스터스 강타

최경주·앤서니 김·양용은 톱 10... 한국인 챔피언 가능성 엿바

미켈슨 우승...우즈 성공적 복귀



'마스터스 그린 제킷도 입어보자'

그간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졌던 마스터스 골프대회도 이제 곧 손끝에 닿을 것 같아졌다. 12일(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오

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끝난 제74회 대회에서 최경주(40),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 양용은(38)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인 마스터스 우승자' 가능성을 엿바기 때문이다.

올해 마스터스 정상 정복에는 실패했지만 최경주, 앤서니 김 등이 4라운드 막판까지 우승 경쟁에 뛰어들어 '코리안 파워'를 세계 골프계에 과시했다.

본격적인 한국 선수들의 마스터스 도전이 시작된 것은 역시 최경주가 처음 마스터스

에 출전한 2003년부터다. 첫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함께 공동 15위에 오른 최경주는 2004년에는 우승을 차지한 필 미켈슨(미국)에 불과 3타 뒤진 단독 3위에 올라 일찌감치 '한국인 마스터스 챔피언' 가능성을 밝혔다.

2007년에는 양용은이 마스터스에 출전하며 처음으로 한국 선수 두 명이 동시에 마스터스 초청장을 받아 부쩍 성장한 '코리안 파워'를 실감하게 했다.

지난해에도 최경주, 앤서니 김이 동반 출전한 데 이어 올해는 한국(계) 선수들이 대회 사상 가장 많이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 모습을 보였다.

2009년 마지막 메이저대회였던 PGA 챔피언십에서 양용은이 우승을 차지해 '메이저도 거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얻은 터라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 거는 팬들의 기대도 날달랐다.

최경주를 비롯해 양용은, 앤서니 김, 니상욱(27·타이틀리스트), 지난해 US아마주어

챔피언십 우승자 안병훈(19), 아시아 아마주어 선수권자인 한창원(19)까지 6명이 출전했다.

최경주는 "우즈와 동반 플레이라는 중앙 감 속에서 메이저대회 10위 안에 들어 대단히 만족한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필 미켈슨(미국)은 최경주(40)의 불꽃 추격을 따돌리고 함께 16언더파 272타로 우승했다. 복귀전으로 전세계 골프팬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타이거 우즈는 최경주와 4라운드 내내 경기를 펼치는 인연을 맺었고 순위도 최경주와 똑같은 공동 4위(11언더파 277타)에 올랐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은 마지막 무려 7타를 줄이며 웨스트우드에 이어 3위(12언더파 276타)까지 뛰어올라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38)도 공동 8위(7언더파 281타)를 차지해 한국 및 한국계 선수 3명이 톱 10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연광뉴스

■ 승부처 된 13번 홀

프로 골퍼선수들에게 15홀은 반드시 버디를 잡아야 할 홀이다.

제74회 마스터스골프대회가 열린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이 유리판 그린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510야드 짜리 파5 13번홀은 평균 타수 4.73타가 말해주듯 버디 잡기가 수월한 홀이다.

이번 마스터스에서 그린재킷의 주인공은 13번홀에서 가려졌다. 티박스에서 그린까지 철쭉 꽃밭이 조성돼 '아펠리아'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13번홀에서 1994년 제프 매거트는 220야드를 남기고 3번 아이언으로 알바트로스를 잡아내 마스터스 역사에 뚜렷한

동반 리운딩은 즐거워

최경주(왼쪽)와 타이거 우즈(미국)가 12일(한국시각) 열린 제74회 마스터스골프대회 최종라운드에서 17번 홀 경기를 마친 후 18번 홀을 향해 돌아서 손을잡고 걸어가고 있다. /연광뉴스

최경주 투온 노리다 "앗! 벙커"... 보기

미켈슨 나무사이로 "원더풀 샷"... 버디

족적을 남기도 했다.

대회 마지막날인 12일(한국시각) 어렵다는 10번홀(파4)에서 버디를 낚아 공동 선두로 뛰어오른 최경주(40)는 13번홀에서 티샷을 페어웨이로 잘 보낸 뒤 그린을 직접 겨냥해 두번째 샷을 날렸다. 두번째에 그린에 볼을 올려 이글을 노리거나 최하 버디를 잡아내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볼은 그린 뒤편 벙커까지 날아갔고 홀까지 심한 내리막 경사는 세번째 샷마저 힘들게 만들었다. 내리막을 의식한 최경주의 세번째 샷은 그린 위에 올랐지만 짧았고 결국 세차려 퍼트를 하면서 보기로 돌아와버렸다. 1, 2, 3라운드에서 모두 버디를 잡아 무난하게 마칠 것으로 보였던 이 홀에서 1타를 잃어 최경주로서는 큰 타격이었다.

최경주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

를 받고 서두르면서 샷을 하다가 실수가 나왔다"며 "특히 두번째 샷을 할 때 갤러리에서 '와'하는 소리가 들려 샷을 중단한 뒤 다시 쳤는데 벙커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최경주는 "이 홀 벙커에서는 한번도 연습을 해보지 않아서 실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챔피언십에서 경기하던 필 미켈슨(미국)은 13번홀에서 맞은 위기를 버디로 바꾸면서 우승을 예약했다.

티샷을 오른쪽 러프에 떨어뜨린 미켈슨은 나무 두그루가 시야를 가리고 있어 두번째 샷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미켈슨은 나무 사이로 그림같은 샷을 날렸고 볼은 홀에서 1.5m 불어 이글 기회를 만들었다. 비록 미켈슨은 이글 퍼트를 넣지 못하고 버디로 돌아왔지만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는 추진력을 얻었다. /연광뉴스